



경로위안잔치개최한 수만골유황오리

조문규 국장

오리고기를 이용한 경로위안잔치가 개최돼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한 수만골유황오리가든(대표 윤대섭).

수만골유황오리 가든이 무의탁 노인과 이 지역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위안잔치를 계획한 것은 지난 11월초 윤사장의 오리에 대한 남다른 열의와 그동안 오리를 사랑해준 이 지역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획됐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 지구 정화라이온스클럽이 주최하고 수만골유황오리의 후원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평촌 먹거리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안양시 동안구 110여 개에 달하는 노인정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과 무의탁노인 120명 등 5천5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경로위안잔치에는 수만골유황오리 농장에서 제공된 오리 3천수를 백숙으로 삶아 오리고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오리국물로 죽을 만들어 노인들이 드시기 좋은 식사도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낮 10시부터 저녁시간까지 일주일에 걸쳐 낮 시간대 영업을 전면 폐쇄하고 개최되었으며 행사에는 정화라이온스클럽 회원가족과 지역 학생 등 봉사요원이 투입돼 행사에도왔다. 특히 이번 경로위안잔치는 10여대의 봉사차량이 이 지역 해당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들을 모셔오고 식사가 끝나면 다시 모셔다주는 편의까지 제공해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까지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했다.

제1회로 개최된 행사에서 윤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몸에 좋은 오리고기를 노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쪼록 편안하게 많이 드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무엇이든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밝힌 윤사장은 이같은 행사가 알려지기를 꺼려했다. 전남 영암이 고향인 윤 사장이 오리와 인연을 맺은 것은 4년 전 현재의 자리에서 조그만 해장국집을 개조해 오리고기 전문점을 내면서부터이다.

처음 몸에 좋다는 오리고기를 이용한 요식업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업종을 전환한 윤 사장은 보다 품질 좋은 오리고기를 소

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에 조그만 농장을 임대하여 오리를 직접사육 도축해 이곳에서 판매했다고 한다.

지금은 요식업소 평수를 늘려 100여 평으로 확장하고 농장도 서산으로 이전해 1만수의 유향오리를 직접 생산하여 도축장에서 도축하여 신선한 유향오리를 공급하고 있다. 입추 후 14일령 내외가 되면 유향을 첨가한 사료를 급여하여 생산되는 수만골유향오리는 특허청에 상표까지 등록하여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유향오리를 공급하고 있다.

유향오리 한 마리에 1만8천원선이라는 싼 가격과 유향오리 구이, 양념구이, 탕, 전골 등을 주요메뉴로 내놓고 있는 수만골유향오리가든의

오리고기 요리의 특징은 부드럽고 오리고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호평 받고 있다.

이같은 남다른 노력으로 수만골유향오리의 주요고객은 가족단위의 손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윤 사장의 설명이다.



평생에 한 번 이같은 행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지난 7월을 전후로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돼 농장에서 생산된 오리가 소비되지 못해 이를 냉동시켜 놓았던 오리 3천수가 이번 행사를 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윤 사장의 설명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 오리고기 소비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업 종사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또 다른 바람을 털어놓은 윤 사장은 앞으로 업계차원에서 맛과 건강에서 우리 몸에 좋은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이 알릴 수 있는 범국민 소비홍보행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번 수만골유황오리의 후원에 의한 안양지

역의 경로위안잔치를 지켜보며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배려하는 사회봉사 정신이 있어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 진다는 진리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바쁜 와중에서도 협회원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남을 위해 일하는 국제라이온스클럽 종사자들의 모습이 마냥 부러웠다.

